

'92 농작물 병해충방제 추진방향

앞으로의 병해충방제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과 깨끗한 환경을
희망하는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고,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약을 덜 쓰고도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종합방제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오 대 환 농림수산부 식물방역과

농작물의 병해충은 온도, 강수량, 바람등 기상조건과 병해충 전염원의 밀도 및 경종방법, 재배작물의 특성등에 따라 발생정도가 크게 좌우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설내의 농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고 자본기술집약적 영농방식으로 고급농산물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병해충의 발생도 복잡다양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농산물중 농약잔류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방법 선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의 병해충 발생과 방제상황을 살펴보고 금년도의 농작물 병해충방제 추진방향을 알아 본다.

1. 1991 병해충 발생과 방제 개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 병해충은 잡초를 포함하여 3,300여종이나 되고 벼농사의 병해충만도 280여종이나 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벼병해충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벼멸구 발생, 중부내륙까지

지난해에는 장마가 예년보다 1주일이나 길었기 때문에 병해충이 평년보다 14% 증가한 1,986천ha에 발생하였다. 특히 벼멸구가 '90년에 이어 '91년에도 크게 늘어나는등 해충발생이 1,324천ha로서 예년 보다 36%나 늘어났다.

이제까지는 벼멸구가 남부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작년에는 충북, 경기, 강원등 지금까지 벼멸구에 대하여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였던 중부내륙지방에 까지 폭넓게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다행히 지난해 8, 9월의 일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1~2도 정도 낮게 형성되어 벼멸구의 증식속도는 '90년 보다 1주일 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발생면적에 비하여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또 영농 초기인 6월에는 벼물바구미가 예년의 2배 가까이 발생하였고 충청북도에까지 확산되어 전북, 충남, 제주를 제외한 8개 시도로까지 번지는 등 방제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어린모 기계이앙을 비롯하여 기계모내기 면적이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

어 어린모의 뿌리를 특별히 좋아하는 벼물바구미 피해가 크게 염려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도열병을 비롯한 병발생은 크게 줄어 병발생이 가장 많았던 8월 상순을 기준하여도 예년의 80% 수준을 넘지는 아니하였다.

농가 스스로 방제에 적극 참여

정부에서는 품질좋은 주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병해충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91년에도 국고 30억, 지방비 63억, 농협환원사업비 8억등 101억원을 보조지원하여 적기 공동방제를 적극 추진하였다.

벼병해충의 방제는 방제적기를 정확히 추정하여 일시에 공동방제하는 것이 농약을 덜쓰고도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첩경이므로 농촌지도소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병해충 발생최성기인 7월부터 9월 중순까지는 매주 2~3회 추적예찰을 실시하는 등 농촌진흥청 산하 진공무원이 총동원되었던 한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0년도에 벼멸구 피해에 자극을 받은 농가에서 스스로 방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하겠다.

2. 병해충 방제 추진상의 어려움

농촌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 농촌의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나 최근에 와서는 병해충 방제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적기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웃 집과 품앗이를 하여도 병해충 방제작업은 예외로하고 있다니 그 어려움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농산물의 안전성, 환경보전 문제등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일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로 부터 농약이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은 농약으로 오염되어 당장 큰일이 생긴 것처럼 오해가 커지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거나 한마디 의견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데서야 자기 소임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과거에 비하여 병해충 방제방법의 선택폭이 좁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하루빨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방법을 연구개발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방제적기를 정확히 추정, 일시에 공동방제하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야 할 것이다.

3. 무농약, 무공해, 유기농산물과 농약사용

우리가 태어난 이 땅에서 농약과 비료없이 농사를 짓고 공해없는 고도산업사회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유기농법 그 자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시비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유기농업으로의 접근방법이 잘못되어 농업생산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지나친 농약사용과 마찬가지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농가소득감소, 농산물부족 초래

첫째, 유기농업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비자와 계약, 생산, 판매하는 것은 농가소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어떤 작목 전체를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유기농업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농약을 완전히 쓰지 아니하였을 때 벼농사는 36% 이상, 사과같은 과일은 90% 이상 감소된다는 보고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수한 일부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절대물량이 감소될 것이고 이는 곧 농가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감소된 소득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생산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 소득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농산물 교역이 자유화된 지금 이 또한 어려울 것이며, 설사 농가의 소득은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여도 농산물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 제초작업 불가능

둘째, 농약의 종류별, 소비추세를 보면 제초제가 물량 기준으로

농약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농촌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경작지 제초작업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농작물은 식물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기형식물이다. 인간이 원하는 부분의 수량을 높이기 위하여 - 예를들어 사과는 열매, 무는 뿌리, 배추는 잎등- 특정부위를 인위적으로 발달시킨 식물이므로 자연상태의 야생식물에 비하여 병해충에 견디는 힘이 약하여 인위적인 보호없이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벌레먹은 농산물이 안전할까?

넷째, 해충들의 활동 흔적이 있는 농산물이 반드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어떤 종류의 곤충이나 균은 독성이 강한 배설물 - 예를 들면 곰팡이에서 생산된 아플라톡신-을 생산한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벌레먹은 농산물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토양이 비료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일본토양의 절반 수준에 불과

하므로 우리나라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도 그만큼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력을 높이는 일이 선행된 후에 무리없는 유기농업이 가능할 것이다.

‘무공해’라고 별다른 것 없어

여섯째, 무공해 농산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유기농산물이 무공해라면 절대다수의 다른 농산물은 공해가 있는 농산물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데 어느 일부 소수의 상품선전 때문에 다른 한쪽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1991년 8월 농약연구소가 시중 슈퍼마켓에서 판매중인 소위 무공해유기농산물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다른 농산물의 분석결과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 현 단위 지방정부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대상 지역선정 및 등록, 비배관리 및 경영기록을 감시하고 소비자, 농협, 농업단체등에서 선발된 심사 위원들의 심사후 인증을 받아 출하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무공해”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신용사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몇가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약도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의약품처럼 약효와 독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물도 과식하면 해로운 것처럼 농약도 바로 쓰면 약이 되고 함부로 쓰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농업으로의 접근은 차별한 분위기에서 선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것이다.

4. 1992 농작물 병해충 방제 추진 방향

앞으로의 병해충방제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과 깨끗한 환경을 희망하는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고,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약을 덜 쓰기도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종합방제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적기를 정확히

추정하고 이미 확보된 병해충 방제지원예산 70여억원('91대비 17% 증가)을 제때에 신속히 지원하여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농약안전사용 현장지도 강화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성수기 이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할 때 농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현장지도계몽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또한 병해충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은 대상작물 및 병해충, 방제시기별로 알맞는 농약의 선택이 우선되어야 하며 선택된 농약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농약판매현장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농약판매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의 취급제한기준도 대폭 보완하여 시행하는 한편 불량농약 유통방지를 위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므로 관련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90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입자유화되면서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만큼, 수입농산물에 대

한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급 농촌지도기관과 국립식물검역소의 협조를 강화하여 외래병해충에 대한 정보 및 예찰체제를 강화하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다.

방제체제 시대조류맞게 운용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므로 중요 병해충에 대한 각시도의 자율방제체제가 신속히 정착되도록 병해충발생 예찰 및 정보발표, 소요자금 지원, 방제명령등 병해충방제 체제를 시대흐름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농가와 농가간, 작목과 작목간의 병해충방제는 -예를들어 벼농사와 양잠농가간- 사용약제, 방제기간, 방제범위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로 서로의 피해가 없이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병해충 방제와 농약 안전사용에 관한 한 앞으로는 농민, 관련공무원, 농약제조자 및 판매업자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금년에도 12년 연속 풍년농사달성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